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

“욕망의 온도를 낮춰라… 그래야 지구가 산다”



자광 원행 대종사는… 독경과 염불소리에 이끌려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했다. 10 · 27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으로 몸과 마음을 크게 상했지만,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을 정진했다. ‘사원의 보수와 중창은 청정불국가람을 수호하는 것이며 이것도 수행’이라는 한암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전 자광사를 중창불사하고, 은사스님을 도와 월정사 대웅전 중창을 이끌었다. 월정사 부주지 소임을 겸해 동해 삼화사 주지를 맡아 노사나철불을 복원했다. 지역 포교에도 힘써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로 장엄했다. 원주교도소를 중심으로 20년 동안 재소자 교정교화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 같은 공로로 2023년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선덕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법무부 중앙교정위원회 고문, 동해해양경찰청 경승위원, 평창경찰서 경승실장, 대한언론인회 고문, 월정사 탑돌이보존회장, 10.27법난피해자모임 회장 등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폭설이다. 차창 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얀 풍경만이 펼쳐진다. 월정사를 품은 오대산이 그려내는 설경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깊이 침잠하게 한다. 신라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 성지를 찾아 7년이란 긴 세월을 주유한 끝에 낙점한 오대산.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있어 1만 보살을 거느리고 항상 설법하는 성산(聖山)이다.

속진의 세계에서 성(聖)의 세계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천왕문을 들어서자 적광전과 동별당 서별당을 비롯한 전각들이 설법을 들려주는 듯하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주석하며 1600년의 역사를 가진 월정사에 ‘화엄성지’라는 명성을 더했다.

월정사 선덕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자광 원행 대종사를 친견했다. 인터뷰는 경내 황화당에서 진행됐다. 자리에 앉아 원행 스님은 그전에 월정사를 온 적이 있느냐고 물으신다. 여러 번 왔지만, 눈 오는 날은 처음 온 것이라 답하며 스님의 근황을 여쭈었다.

세수 팔십이 넘었지만 원행 스님은 지금도 날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경내 팔각구층석탑을 탑돌이한다. 어른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구가 온전하기를,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기원하신단다.

“이젠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여쭈니, 원행 스님은 “수행자는 일상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현답을 내놓았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일은 이렇듯 사소한 생활규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력이 지극해지면 같은 시대 나아가서는 미래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소한 개인의 육바라밀이 지구촌 사람들과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에게 회향되는 자비로운 주문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평생 화두 “멍청이가 되어라”

원행 스님은 만화 스님을 은사로 탄허 스님을 법사로 수계 득도했다. 원행 스님은 에세이집 〈월정사 멍청이〉를 출간했고, 곧잘 자신을 ‘월정사 멍청이’라고 부른다. 그 연유는 스님의 출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행 스님은 20대에 염불과 독경소리에 이끌려 출가를 결심했다. 오대산에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라는 고승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서울에서 걸어서 월정사에 도착했다. 크게 반겨주는 사람도 없이 일주일이 흘렀고, 기다리던 큰스님의 부름이 있었다. 이때부터 월정사에서 행자생활이 시작되었다. 수계식을 갖고 불명을 받았다.

“탄허 큰스님께서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명(十地名) 보살 가운데 칠지 보살인 원행지가 있다. 너는 원행(遠行)이라 해라. 그리고 멍청이가 되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법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난 똑똑하고 영리한데 왜 멍청이가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품었지만, 평생의 좌우명으로,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별좌·공양주·원주 10년에, 재무 10년, 총무 10년, 부주지 12년을 했으니 오대산 월정사 변화를 모두 확인한 산증인이다.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의 일상 그대로가 큰 가르침이 됐고, 지금도 어떤 일에 부딪히면 어른스님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된다.

염불, 독경 소리 이끌려 佛門에 들어
한암·탄허·만화스님 법통 이어 정진
새벽예불 후 탑돌이, 원각경 독경 등
모든 일상이 선지식 가르침서 비롯돼
“수행자는 일상 질서 무너져선 안 돼”

“월정사에 출가해 보니 6.25 전란 때 아군의 방화로 불타버린 대웅전을 중창하는 불사가 한창이었어요. 만화 스님은 13살에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한암 대선사의 회상에 출가하셨지요. 6.25전쟁 때도 피난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한암 스님을 시봉하신 효상좌입니다. 10.27 법난으로 옥고를 겪었지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으니 인욕보살입니다. 하지만 상좌들에게는 참으로 엄격하신 분이었지요.”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의 가르침

월정사의 법통은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으로 이어진다. 세 선지식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한 원행 스님은 〈성인(聖人) 한암 대종사〉 〈탄허 대선사 시봉 이야기〉 〈만화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를 출간했다. 특히 한암 대선사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최고의 선승이자, 시대의 사표로 종정에 4차례나 추대된 위대한 선지식이시다. 현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확립하신 시대의 등불이었음을 〈성인 한암 대종사〉에 오롯이 담았다. 〈탄허 대선사 시봉 이야기〉에는 탄허 스님의 〈화엄경〉을 비롯한 역경(譯經) 불사와 유불선의 사상에 정통한 최고의 학승으로 강의로 이름을 떨친 이야기가 담겨있다. 큰스님들의 수행과 법문 그리고 큰스님들이 서릿발같이 지켜온 일상 속 계율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과 수행이 다르지 않음을 깨우칠 수 있게 된다.

행자 시절 잠이 많아서 고생했던 원행 스님은 새벽잠이 없는 어른들이 존경스럽기만 했다. 종정을 네 번이나 역임하신 한암 스님은 새벽 3시에 예불하고, 선방에서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사시예불에는 한 시간이나 걸리는 대예참을 직접 다했다.

탄허 스님은 밤 9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첫잠을 깨면 다시 눕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만화 스님은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밤새도록 앉아서 참선을 했다. 탄허 스님은 “첫잠에서 깨면 다시 눕지 마라. 첫잠을 깰 때가 가장 기운이 맑을 때니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원행 스님은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며, 1년의 계획은 봄날에 있으며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면서 새벽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만화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나서는 영단을 향해 ‘무상게’를 꼭 독경해 줬다. 아침저녁으로 예불이 끝나면 대중들이 참선하고 경전을 읽도록 했다. 대중 한 사람이 나와서 한 대목을 읽으면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독송했다. 그 덕분에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유마경〉 등의 경전공부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을 은사 만화 스님께서 아침저녁으로 독송했기에 제자인 원행 스님도 아침저녁으로 〈원각경〉을 독송하고 있다.

선남자여,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하므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므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하므로 환의 멸도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하므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이를 테면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원행 스님은 〈원각경〉의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변화할 뿐 영원한 것이 없고 그저 시간 속을 흘러가는 바람 같고 구름 같고 꿈같은 것이다. 그러니 실재는 텅 비어 있을 뿐’이라는 무상의 이치를 다시 되짚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금강경〉을 압축한 것이 〈반야심경〉이요, 〈반야심경〉을 압축하면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 얻은 바가 없음’의 한 구절로 귀결된다”고 했다.

13면에 계속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520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